



"한 마음 한 가족"(고전 1:10)

가장 아름다운 계절,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 아프고 힘겨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권면을 통해,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경청'해야 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족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과 행동 너머에 있는 마음을 살펴주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부부 역시 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인정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가 쌓일 때 가족 사이에 있던 작은 오해와 상처도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서로의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고, 서로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주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가족 모두가 '같은 방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생각과 성향, 살아가는 방식까지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몸이 건강해도 심장이 멎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서로의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기쁜 일에는 함께 감사하고, 힘든 순간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 든든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정이 예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같은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으며 한마음 한가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

2026 추석

가정예배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 ----- 말은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301장 /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대표기도 ----- 말은이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장 10절 ----- 다같이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설교 ----- 한 마음 한 가족 ----- 설교자

찬송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다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 랑 의 인사 ----- 다같이

※ 가족 간에 칭찬과 격려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눈 후에 중보의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안내

1. 예배드리기 가장 편안한 시간을 미리 정하십시오.
2.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차분히 가족들을 기다리십시오.
3. 예배 순서 담당을 미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4. 교회 유튜브 채널 혹은 앞면 QR코드를 통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